2008년 11월 20일 목 말씀

여러분들은 나를 잘 알지만 나는 여러분을 청중 속에서 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를 잘 몰라본다고 서운해 합니다. 외국생활만 10년 동안 했으니까 그전에 봤다고 해도 10년 전에 봤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사람을 오전에 봤어도 오후에 다른 생각하면 생각이 잘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회장 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을 5년 동안 시켰다며 서운해 합니다. 왜 나에게 자기소개를 안 합니까? 나 이런 사람이니 회장하고 싶다고. 성경에도 '구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하면 줍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모든 상황을 다 압니까? 자기를 몰라줬다고 서운해 합니다. 같이 사는 가족도 말을 안 하면 부모가 그 심정을 다 모릅니다.

대집회는 못합니다. 내가 많이 연구했습니다. 월명동에 모이는데 한 명 오는데 3만원은 듭니다. 차비와 왔다 갔다 하는 경비 합하면 3만 원정도 듭니다. 만 명이면 3억이고 10만 명이면 30억입니다. 이 돈이면 전도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30억이면 3만 명 전도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10만원가지면 한 명씩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자기를) 알아달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것이 큰 것입니다. 내가 알아주면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자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얘기 안하면 모릅니다. 내가 70일 동안 밥 굶고 형님 집에 갔을 때 밥을 안줬습니다. 먹어보라고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어디 보자. 평생 동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가 먼저 이야기 했냐' 물으셔서 '안했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아냐'고, '너의 형이 신(神)이냐'고 했습니다. 결국 20년 후에 내가 형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은 "그때 너 금식중이지 않았어? 금식 중인 사람에게 밥 먹으라고 하면 약 올리는 것 아니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말을 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밑의 사람들도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각 분야에서 소망 있게 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낙(樂)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왜냐하면 안 보여서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안 보여서 부모를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압니다. 효자가 있습니다. 효자가 십리에 하나씩 있을까요? 십리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백리에 하나씩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관심을 가져야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일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서 결국은 크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은 왕으로서 만날 편하니까 자기 스스로 살다가 멸망으로 갔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쫓기면서 살던 사람은 계속 근신을 합니다. 나중엔 쫓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쓰고 10년 동안 고통 속에 책만 60권이 넘게 나왔습니다. 사람이 관을 잘 못 먹고 나가면 안 됩니다. 관을 잘 못 먹고 신앙생활하면 평생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준 것을 평생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았다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평생 그렇게 삽니다. 사고를 잘 못하면 사고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 정확한 사고를 어떤 사람에게 맞출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가장 신앙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성경의 31062절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시대의 성경 가운데 말씀하는 것을 잘 듣듯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9시간 10시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10명도 못 다스리지만 나는 50개국 나라를 다 통솔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백 배, 천 배, 만 배 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받아도 밥을 안 먹어도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지런히 깨우쳐 줍니다. 정신적으로 깨우쳐줍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면 지옥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의에 빠지지 말고 서운하게 생각 하지 말고 열심히 뻗어 나가야 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매일 서운하게 생각했습니다. 큰형도 그때 나만 안 알아주는 줄 알고 서운하게 생각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큰형은 대학교를 4개나 나와 박사가 되었어도 한 천명 목회하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누가 그래도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요.

기도는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내가 가족들 전도할 때 예수님께 나는 안 믿어도 되니까 내 믿음을 우리 아버지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안 믿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어 올라오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한 3년 동안 기어올라 왔는데도 우리 아버지처럼 안 믿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전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가지고 하니까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온 것입니다.